

27.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단 4:25)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인류역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당시의 포로민들은 물론 고난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포로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사자굴에 갇히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역사속에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서는 다니엘이 기록하였기에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졌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그곳의 궁궐에 있었던 B.C.5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역사에 대해서, 7-12장은 선지자적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구별된 사람으로 살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왕궁의 일을 맡을 젊은이들 가운데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에 투철했던 나머지 왕궁의 기름진 진미를 사양하고 대신 채식을 선택합니다. 당시 대부분 왕의 진미는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었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포기하고 채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을 밝히고 해몽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명한 술사들이 해몽할 엄두도 못내었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능히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천사가 그들을 보호함으로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훗날에는 하루에 세 번씩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조금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주십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사람들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세상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음식도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도 세상사람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세상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는 독실한 신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 마지막 때임을 알라!

다니엘은 7-12장까지 장래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 이방나라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보며, 말세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몇 년 안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갈빗대를 물고 있는 꿈’은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하며 갈빗대는 이미 패망한 애굽, 바벨론, 리비아를 상징합니다. ‘날개와 네 개의 머리가 달린 표범’은 그리이스(헬라)를 나타내며, ‘무서운 짐승’은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철에 해당하는 로마제국을 상징하는 동시에 “말세”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8장의 수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 10장-12장의 장래에 관한 마지막 환상등은 인류역사가 성경에 예언된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운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에 예언된 역사의 시간표에 의하면 인류종말의 마지막 때에 서 있음을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장4

절에 소개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12:4)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통과 정보가 아주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최고로 발달하여 사람을 복제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거의 일일 생활권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비행기, 초고속 전철, 자동차의 발달 등은 다니엘이 살던 시절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인간의 지식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입니다.

최근 을지병원 산부인과 김세웅교수는 면역결핍 쥐에 사람의 냉동난소를 이식, 난소의 속의 미성숙 난자를 배양한뒤 배란 유도 주사를 주입해 정상 배란과 황체형성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난소를 쥐에 이식해서 배란에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종교잡에 대해 서강대 유재명 교수는 “이는 인간 존엄성의 파괴이자 창조질서의 파괴다. 이 난자를 사람의 난자로 봐야 할지, 쥐의 난자로 봐야 할지 혼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식이 발달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역사의 종말이 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환경의 파괴가 이제는 더 이상 지구가 버틸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물이 부족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 예측할 수 없는 일기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빙산이 녹아 내려 점점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유치부 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